선택받는 자리의 무게

현불논단



설해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끝나고 이제 종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321명의 선거인단에 포함된 필자는 얼마 전 종단의 미래를 이끌 총무원장이라는 소임에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자리에 있었다. 이제는 비구니 종회의원이라는 소임을 맡을 적임자로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 선택하는 자리에서 선택받는 자리로 옮겨 서니 마음이 한층 무거워진다.

4년 전 처음 종회의원에 입후보했을 때의 생각은 단순했다. 스님들의 수행 환경을 향상시키고 종단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제안하면 대중이 뜻을 모으고, 필요한 일들은 하나씩 추진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종회 활동을 하면서 하나의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종책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해야 했고, 때로는 오랜 시간 설득하고 기다려야 했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다시 종회의원에 입후보하고 보니 걱정은 오히려 많아졌다. 그러나 그만큼 원력은 더욱 굳건해졌다.

스님들에게 소임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다. 직책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사부대중의 기대와 종단의 미래를 위해 바르게 사용할 때 비로소 그 소임에 대한 보람과 만족, 명예도 따라온다. 대중의 선택을 받아 소임을 맡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부대중과 종단을 위한 종회의원 소임
지속가능한 종책과 제도에 책임감 필요
공심·약속 실천으로 종단 미래 열어가야

를 얻는 일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맡는 일이다.

총무원장이라는 소임은 종단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좁게는 큰 사찰과 작은 사찰, 도시 사찰과 산중 사찰, 비구와 비구니, 노스님과 갓 출가한 스님, 출가자와 재가불자를 두루 살펴야 한다. 넓게는 이웃종교와의 관계, 사회·국가와의 관계를 고민하고 인구 감소와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불교의 역할도 고민해야 한다.

종회의원이라는 소임도 다르지 않다. 종헌·종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하나의 법안 발의, 종회에서 한 번의 발언과 한 번의 표결이 눈앞의 이해관계를 넘어 10년, 20년 후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4년이라는 기간에 만들어진 좋은 법과 제도, 올바른 종책 하나가 종단과 사부대중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에 대중의 선택을 받은 소임자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보다 '종단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소임자가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 백년대계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소임을 살아야 한다.

출가자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수행 환경을 만들고, 비구와 비구니를 비롯한 사부대중이 더욱 평등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불교가 우리 사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밝은 미래는 소임자가 공심을 잃지 않는 것, 대중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앞날을 생각하며 법과 제도를 만들고 종책을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대중의 선택을 받은 소임자가 지켜야 할 책임이며, 필자가 다시 종회의원이라는 소임을 발원하는 이유다.

필터버블 시대의 중도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스마트폰 화면을 넘길 때마다 관심 있을 법한 영상과 뉴스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무엇을 검색·클릭했는지, 어느 화면에 오래 머물렀는지를 학습한 알고리즘의 결과다. 이러한 개인화는 편리하지만, 자신의 선호 정보와 견해만 반복적으로 접하는 필터버블(Filter Bubble)을 낳기도 한다. 여기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관계망이 더해지면, 신념이 메아리처럼 반복·증폭되는 '에코챔버(Echo Chamber)'가 형성될 수 있다.

그렇다고 알고리즘만을 사회적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알고리즘의 추천 못지않게, 이용자의 선택과 관계 맺는 대상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이용자의 관심을 붙드는 정보를 추천하고, 이용자는 다시 자신의 취향과 신념에 맞는 정보를 선택한다.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다른 생각을 접할 기회는 줄어들고, 자신의 판단은 점점 견고해진다.

이 과정을 불교의 업(業)과 인연(因緣)에 빗대어 보면 흥미로운 결이 드러난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정보는 온전히 외부에서 강요된 것만은 아니다. 지금까지 검색·클릭하고 시청해 온 나의 선택과 습관 또한 하나의 조건이다. 반복된 선택이라는 '인(因)'과 플랫폼의 기술적·경제적 구조라는 '연(緣)'이 만나, 개인화된 정보 세계라는 '과(果)'를 빚어낸다. 인간이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고, 알고리즘은 다시 인간의 선택에 관여한다. 이

알고리즘 학습이 선택에 재관여 굴레
다른 가능성 배척 않는 중도 지혜 要
선택·배척 자각해 사고의 틀 탈피해야

른바 디지털 업의 굴레이다.

이 굴레를 넘어서는 지혜로 중도(中道)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중도란 자신의 견해를 절대화하여 다른 가능성을 배척하지 않는 태도에 가깝다. 이는 대행 선사가 강조한 '둘 아닌 도리'와도 맞닿아 있다. 대행 선사는 내 몸 하나만 보더라도 수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공생이며, 세상의 모든 존재 또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간다고 설했다.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세상을 '나와 같은 것'과 '나와 다른 것'으로 가른다. 우리 또한 익숙한 주장에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낯선 견해 앞에서는 먼저 벽을 세운다. 그러나 중도의 시선은 자신의 판단에 집착해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라 말한다. 타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놓인 배경과 맥락을 살피는 것, 거기서 소통이 비로소 시작된다.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것은 자각의 클릭이다. 자극적인 제목에 손가락이 움직이기 전, 잠시 멈춰 내가 왜 이 정보에 이끌리는지 돌아보는 일이다. 알고리즘이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다른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찾아 나서는 일이다. 경청이란 상대 주장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만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행위다. 물론 개인의 성찰만으로 알고리즘의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플랫폼 역시 추천 구조의 투명성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자극적 정보가 과도하게 증폭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알고리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정보의 흐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배척하는지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 나와 다른 목소리를 적으로 돌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확증편향과 분열의 시대, 이러한 중도적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서로를 다시 잇는 지혜이자, 우리가 이 시대에 실천해야 할 또 하나의 수행일 것이다.

社 說

기후재난, 자비 넘어 연대로

최근 네팔과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자연재해가 얼마나 빠르게 복합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네팔과 티베트에서 수천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고 가옥과 도로, 교량은 물론 수력발전시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참사는 기후위기가 재난의 규모와 양상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극명히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빙하 붕괴와 홍수, 산사태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위험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네팔이 국제사회에 '자선이 아니라 기후정의와 보상'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네팔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은 국가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떠안고 있다. 네팔의 호소는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묻는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재해가 복잡재난으로 확산되는 시대
연기 가르침 바탕, 기후정의 실현 나서야

인도네시아에서는 가뭄과 산불이, 유럽에서는 폭염과 산불이, 일본에서는 극한호우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한반도 주변 해수온 상승은 앞으로 더욱 강한 폭염과 집중호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고 관계 맺으며 살아간다는 연기(緣起)의 가르침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깊은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 배출한 탄소와 훼손한 자연환경이 결국 다른 지역, 다른 생명, 그리고 미래세대의 삶을 위협한다.

자비의 실천은 이러한 인식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한국 불교계가 긴급 모금을 시작하고 현지에 구호단을 파견하는 것은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자비행이다.

그러나 기후재난 시대의 자비는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재난의 원인을 줄이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에 기후정의는 재난을 예방하고 책임을 함께 나누는 사회적 실천이다.

불살생계 또한 오늘날에는 그 의미를 넓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가르침은 생명을 길러내는 산과 강, 숲과 바다의 가치를 존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줄이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개인의 절약과 친환경적 생활도 중요하지만,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비롯한 사회 전체의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6'에서 평가 대상 67개 국가·지역 가운데 63위에 머물렀다. 기후위기의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그 원인을 줄이는 노력에는 소극적이라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라고 하기 어렵다.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그 피해는 국경과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그러기에 기후재난 앞에서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연대이며, 자선에 머물지 않는 기후정의다.

자비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 기후위기 시대 불교가 보여줘야 할 자비는 고통받는 이를 돕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연대를 이끄는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경혈자극요법 287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뿌리,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
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의 염불시설한 베테랑업체!
전화하시면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 본사 유선마이크로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 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